

제 목	병아리 교사의 백문불여일견 체험기
<p>얼마 전, 아이들과 텃밭 활동을 하던 중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느꼈던 일이 있었다. 이론과 실체가 딱 맞아떨어지는 경험이랄까? 머리에 담아둔 교육 내용을 갑작스레 일어난 응급상황에 잘 적용해서 영아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던 잊지 못할 순간이랄까?</p> <p>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곱씹게 되는 ‘그 날’의 상황과, 안전교육을 받았던 날의 기억을 정리해 보려 한다.</p> <p>만 2세반 담임이자 신입교사인 나는 한 학기 동안 우리 반 영아들과 적응하는데 필요한 놀이 방법이나 상호작용 등, 보육에 도움이 되는 교육에만 관심이 많았다.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탓이지만 그만큼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병아리 교사였던 것이다. 그러던 중 받게 된 ‘심폐소생술’과 ‘하임리히법’ 교육은 안전교육에 대한 나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.</p> <p>먼저 이론 시간으로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응급처치 방법을 배우며, 다양한 응급상황 사례를 듣다 보니 어느새 나는 피곤함도 잊은 채 맑은 머리로 교육에 집중하고 있었다. 이어지는 실습 시간에는 강의 때 배운 처치 방법을 실제 상황처럼 직접 연습해 보고, 화면에 나타나는 개인별 수치를 통해 처치하는 자세와 힘 조절 및 속도를 점검받았다. 강의를 꼼꼼히 들었다고 자신만만했는데 나의 성공률 수치는 9%로 표시되었다.</p> <p>‘두둥!!’ 어디가 잘못된 것일까? 자세가 이상했나? 힘 조절이 약했나?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더니 강사님께서 오셔서 자세와 강도를 고쳐주셨다. 강사님이 코치해 주신대로 엉덩이를 조금 더 들고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체중을 실었더니 83%로 성공률이 올라갔다. 이론과 실체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 순간이었다. 이론은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많지만 실제로 체험해 보는 것은 이러한 전문적인 교육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종사자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.</p> <p>‘심폐소생술’ 실습을 어렵게 마치고 나니 ‘하임리히법’은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졌다. 이물질이 쉽게 ‘툭’ 튀어 나와서 그렇게 느꼈는데, 잠시 후 이야기</p>	

할 텃밭 사건으로 하임리히법이 쉽다는 편견은 싹 바뀌었다.

그렇게 교육을 마치고, 어린이집의 일상으로 돌아간 어느 날.

바깥놀이를 하러 나가는 길에 영아들과 텃밭에 물을 주고 놀이터로 이동했는데 미끄럼틀 아래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는 영아가 눈에 들어왔다.

영아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, 왜 그러냐는 물음에 대답도 못한 채 헛구역질을 하고 있었다. ‘아!!! 영아 목에 무언가 걸렸구나!!’ 라는걸 인식하고 응급처치를 해야 할 상황임을 직감하였다.

그 순간 ‘나 혼자??’, ‘실패하면 어쩌지?’ 란 두려움이 들었고 너무 떨리고 무서웠다. 주변 둘러봤지만 도움의 손길은 보이지 않았고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 없이 바로 하임리히법을 실시하였다.

먼저 영아의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인 뒤 손바닥으로 등을 두드렸다.

“이렇게 등을 두드리면 괜찮아진대~ 조금만 참아~” 라는 말로 불편해하는 영아를 안심시켰다. 몇 번 두드려도 이물질이 나오지 않자 ‘이게 맞나... 내가 잘하고 있나...’ 걱정을 하면서, 교육받았던 하임리히법을 적용해 왼손 주먹을 아이 명치 있는 부분으로 가져다 대고 아이의 몸을 조금 더 숙여 처음보다 조금 더 강하게 두드렸더니 영아의 목에서 몇 번 씹지 않은 방울토마토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.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은 영아를 끌어안자, 긴장이 풀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.

영아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고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낀 하루였다. 머릿속이 하얘지고 당황한 그 순간에도 ‘하임리히법’ 을 바로 떠올렸던 건 교육을 받은 지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고 집중해서 강의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안도하였다.

잊을 수 없는 ‘그 날’ 을 겪은 후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‘나도 할 수 있구나!!’ 였다. 사람을 살리는 일은 의사나 구급대원분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,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을 느끼며 매년 실시되는 종사자 안전교육을 더 성실히 책임감 있게 배워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.